

재정부, 작년 국세수입 따져보니

총 138조원... 전년보다 8.3% 늘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138조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세입예산보다 2조7천100억원이 많다. 예산대비 초과징수 규모로는 2000년 이후 6년만에 가장 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38조443억원으로, 전년 127조4천657억원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2년 8.5%, 2003년 10.3%, 2004년 2.7%, 2005년 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과세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31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5.8% (6조4천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 징수액은 세율인하와 실적감소 때문에 29조4천억원에 그쳐 1.5% (4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민의 관심을 모은 종합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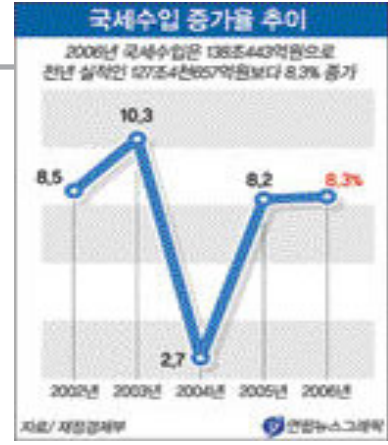
세 징수액은 전년 4천억원보다 200.8% (9천억원) 많은 1조3천300억원이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종부세 징수액도 267억원으로, 전년 97억원에 비해 1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과세기준 금액인하,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6년 회계연도 예산운용 결과 지난해 세입예산(135조3천336억원) 중 세입

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2조7천107억원(2.0%) 초과했다.

세목별 예산대비 세수실적으로 보면 소득세가 예산에 비해 3조3천억원 더 많았고 ▲법인세 2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7천억원 ▲특별소비세 5천억원 ▲종합부동산세 3천억원 ▲상속증여세 2천억원 등이 더 걸렸다.

반면 ▲부가가치세 3조2천억원 ▲교



통세 2조1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 ▲주세 2천억원씩 예산에 미달했다.

전남대 조인선 교수(세무회계)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면 민간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신축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해 다음해 예산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담양의 농업실험 기대된다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쌀 수입개방 확대와 한미 FTA협상 등 농업환경의 격변이 코앞에 닥치면서 전남 각 지자체와 농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마저 지난 2000년 93.6kg이던 것이 2005년에는 80.7kg으로 줄었고, 그나마 2014년에는 65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벼 재배 농가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전남 각 지자체와 농가들은 쌀 농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고소득 대체작물에 눈을 돌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하라봉'도 전남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제주지역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질이 좋아 당도 높은 상품 생산이 가능한데다 타 작목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돈이 필요한 대체작목이라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 높은 대체작물은 녹차·복분자 등 20여 개에 불과해 선택폭이 좁은데다 지역간 겹치기가 많아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작목은 '녹차'다. 분산인 보성군 뿐만 아니라 구례·순천·화순·영암 등이 최근 수년간 너도나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쪼다 관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보성군과 강진군은 '녹차' 상품화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작(米作) 비율이 72%에 달하는 담양군이 최근 '야생 찬' 대체작목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2년까지 1천200ha를 벼 대체작목으로 전환, 지역별로 특화해 딸기·방울토마토 등 시설원예를 비롯 우리 콩·찰옥수수·생약초·복분자·블루베리 등을 틈새 작목으로 집중재배토록 한다는 계획이 다.

물론 담양군의 이같은 획기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령화가 진행될 상황에서 재배기술 보급과 유통문제 등 대체작목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남지역에서 농사만으로 1년간 여타 소득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은 그 비결로 '경쟁력'을 꼽았다. 지자체의 대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 개개인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쌀시장 개방 파고를 넘으려는 담양군의 '블루오션 찾기'와 '선택과 집중'이 성공해 타 지자체의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song@kwangju.co.kr



美 가는 종근위안부 할머니들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용수 할머니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미활동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DJ 햇볕정책 지지 일관된 신념"

손학규 자신 홈페이지에 글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2일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던 것으로 갑작스런 옹호가 아니다"며 '일관된 신념'임을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동아일보 김학준 발행인에게'라는 공개편지 형식의 글에서 "귀 신문의 지난 10일자 사설은 '손 전 지사가 갑자기 햇볕

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 여론 지지도가 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안간힘'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의 진의를 왜곡하고 발언의 취지를 폄하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이 타결될 경우 주변국들이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가 본격화 될 때를 대비해 우리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개발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햇볕정책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계승·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재차 대북 포용정책론을 피력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예민한 대선 정국에서 주자간 정책논전에 끼어들어 편파적으로 시비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인지 의문을 버릴 수 없다"며 "이 사설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거노인들 우울증 심하다

복지부, 광주남구 등 5000여명 실태조사

혼자 사는 노인이 육체적,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 지고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정서적 측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광주시 남구와 경기도 수원,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복제주군 등 노인수발보급제도 1차 시범 실시지역 노인 5천368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들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간 드러냈던 문제 행동은 우울증이 9.9%로 가장 많았고, 불면증(7.7%), 환각·환청(3.4%) 등이 뒤를 이었다.

우울증은 남성의 경우 노인 부부는 5.7%로 평균치보다 훨씬 떨어졌으나 노인 독신은 12.9%, 자녀 동거 노인은 6.2%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여성은 노인 부부가 8.

4%인 반면 노인 독신이 14%, 자녀 동거자는 12.6%로 노인 부부에 비해 훨씬 높았다. 불안·초조 증상은 더욱 심해, 남성이 자녀 동거자가 1.3%로 노인 독신(0.6%), 노인 부부(0.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자녀 동거자(4.2%)가 노인 독신, 노인 부부(각 0.9%)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관절염(57.1%), 고혈압(41.3%), 요통(37.3%), 신경통(31.3%), 골다공증(21.9%), 변비(21.5%), 백내장(19.5%) 등의 순으로 많이 앓았다.

/연합뉴스

DJ, 日 오키나와로 나흘간 휴가

사면복권 박지원 前실장 동행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 내외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縄)로 휴가를 떠난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 장영달 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나라당 세력에 대항하는 범여권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실정치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어 '오키나와 구

상'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입장과 행보를 취할 지 주목된다.

이번 휴가에는 최근 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직후 '동고동 복귀'를 공언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동행하며, 양성철 전 주미대사, 주지연의 장석일 박사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해외 휴가여행은 집권 전인 지난 1996년 8월 광으로 휴가를 다녀온 지 11년 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년 중국 명문대학 6학기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1,2,3학년 입학 및 연입

2008년 5월 본고사 대비

2007년 9월 총합대 입학

타이베이어나 中國語學院

www.taipeinara.com.tw

문의전화: 2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평사총YEM사사민어학원 조성훈 교수 권역 1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8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등중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담구 ☎(082)222-6253